

용어 설명

혹서기	몹시 무더운 시기.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7~8월을 뜻함.
혹한기	몹시 심한 추위가 있는 시기.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2월~2월을 뜻함.
포획틀	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하기 위한 틀로 주로 철제 통댓을 말함.
수태	새끼를 뱀.
포유	어미가 제 젖으로 새끼를 먹여 기름.
봉합사	상처나 찢 부위를 꿰매는 데 쓰는 실.
흡수성	빨아서 거두어들이는 성질.(다시 포획하여 실밥 제거하기가 힘든 길고양이 특성상 중성화수술 시 신체에 흡수되어 녹는 실을 사용해야 함)
방사	길고양이를 포획 후, 놓아 줌.
개체관리카드	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animal.go.kr)에 등록하는 TNR 길고양이에 대한 기록. 포획 정보와 길고양이 정보를 기입.

길고양이 지자체 TNR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!



안전한 중성화사업 실시로 길고양이가 사람과 바람직한 공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동물권행동 카라

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

〈농림축산식품부 고시〉 2022. 1. 1. 시행

길고양이 중성화사업(TNR, 포획-중성화 수술-제자리 방사)은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길고양이 보호 정책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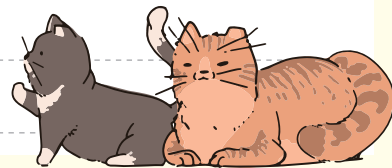
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소한의 필요 사항을 《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》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
1. 포획

- 포획 틀에는 용도, 담당자,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
- 포획 후에는 차광 천,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야 함
-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·소독해야하고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로 낡거나 녹슬지 않도록 관리
- 장마철에는 포획 시 길고양이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
- 혹서기에는 포획 틀을 그늘에 설치하고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후에 포획
- 혹한기에는 눈 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

포획 후, 이럴 땐 즉시 방사해 주세요 (TNR 제외 길고양이)

- 몸무게 2kg미만
- 수태 또는 포유 중인 개체
- 기존에 중성화되어 귀 끝이 절개된 개체



동물권행동 카라

2. 중성화 수술

-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해야하며 포획을 기준으로 만24시간 이내에 실시 (어려운 경우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)
-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 된 경우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쳐 방사
- 마취 중 포유가 확인 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는 즉시 방사
- 수의사는 수술 중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멸균된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수술
-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는 흡수성 재질이어야 하며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고 봉합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해야 함
- 수의사는 길고양이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해야 함

3. 제자리 방사

-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,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함
- 장마철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사
- 혹서기에는 아침 또는 저녁 등 하루 중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방사
- 혹한기에는 방사일로부터 기온이 0°C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방사 자제
- 길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 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 방사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

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전문은 아래 사이트 또는 우측 QR 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전문 보기: www.law.go.kr/행정규칙/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

